

세계화시대 자유무역과 이민 : MERCOSUR를 중심으로*

최금좌(한·중남미 협회)**

- I. 들어가는 글
- II. 세계화시대의 이민 : 노동력의 대량이동
- III. MERCOSUR와 이민 : 역내 및 역외이민 증가
- IV. 브라질의 경우 : 파라과이에서 미국으로
- V. 맺음말 : MERCOSUR 지역에서 NAFTA 지역으로

I. 들어가는 글

최근 3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자유주의 무역질서로부터 지역의 이익을 보존하고 방어하려는 국가간 경제블록인 유럽연합(EU 1957),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 남미 공동시장(MERCOSUR 1991) 등의 경제통합과 함께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는 국제이민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또한 자본의 유입 및 상품의 생산 그리고 자본의 소유 과정이 국제화되고 있다. 세계화시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원칙적으로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의 지원(과제번호 KRF-2002-072-BM2085,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사회문화변동”)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Keum-Joa Choi(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poderosa2222@hanmail.net), “Free Trade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in the case of MERCOSUR”.

운 이동은 허용하되, 인구이동은 저지할 목적으로 태동되었다. 하지만 실제 그것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 그 자체가 인구이동을 감소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1991년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이민문제를 의제로 다룬 바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노동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민문제를 향후 미주지역에서 탄생할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Weinberg 2003).¹⁾

세계화시대 이민은 해당국가의 사회 및 문화는 물론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이민을 송출하거나 수용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나간 이민이 자국의 일정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와의 무역, 원조, 투자 그리고 산업발전 보조정책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세계를 대표하는 라틴아메리카는 1969년 안데스 협약(Pacto Andino)을 체결해 지역통합을 처음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 것이었다. 그런데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태동시키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것은 개도국들만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태동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그것의 경제적 성과를 가름하는 이론이 벌써부터 분분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ERCOSUR의 태동이 이민-역내이민과 역외이민-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MERCOSUR 지역에 나타난 이민의 역사적 배경과 동기 그리고 그 결과, 역내 회원국들의 이민정책의 차이, 그리고 역외이민이 일어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역내이민이란 MERCOSUR 회원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민이다.

1) 미국은 2003년 칠레와 싱가포르로부터 전문 직업인 6,800명에게 비자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런데 MERCOSUR 회원국사이에는 경제통합 훨씬 이전부터 소위 국경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국경이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공통된 역사적 배경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은 물론, 경제적 요인 – 토지개혁의 실패로 인한 농업종사자들의 토지 가치 승배 – 에 기인한다. 그런데 주지할 만한 사실은 이 ‘국경이민’이란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대표적 유형이며, 또한 라틴아메리카는 그 대표적 표본이라는 것이다(Santillo 1998).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개발도상국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 감소, 높은 실업율, 불안정한 생활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촉발시켜, 인접 이웃국가로의 이주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 경제통합 초반에 나타나는 이민현상은 주로 농민들의 이웃국가 농업분야로의 진출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주로 도시의 산업분야로 흡수된다. 따라서 초기에 국경을 넘나들던 농민들의 국경이민의 형태는 나중에 도시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웃국가 도시로의 직접 이주형태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 때 선진국은 자국의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뽑아 쓸 수 있도록 아주 까다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여 규제한다. 이러한 “선별적 이민”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중간과정 – 중간과정 중에서도 초기 – 에 일어난다. 하지만 8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민은 MERCOSUR 지역으로부터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EU나 NAFTA 지역으로의 “거국적 대중이민”으로 전환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Santillo 1998).²⁾ 이것이 MERCOSUR 지역의 역외이민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지역에 나타난 역내 및 역외이민 현상을 MERCOSUR 태동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그런데 MERCOSUR의 역내이민이나 역외이민에 대한 사실상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의 이민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회원

2) 유럽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작 깨닫고 1974년 이민의 문호를 좁혔다. 왜냐하면 새로 받아들인 이민들을 경제 및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또한 이민에 대한 통계자료가 가장 풍부한 브라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II. 세계화 시대의 이민 : 노동력의 대량이동

CEPAL은 세계화의 단계를 세 시기로 나누며, 라틴아메리카가 세계화 과정에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 번째 시기(1870-1913) 라틴아메리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선진국의 발전모델을 모방하며, 자국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했다. 두 번째 시기(1945-197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은 총생산을 증대시켜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때 라틴아메리카는 아무리 일정기간 성장했다하더라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1973년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금융의 세계화과정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고 또한 경제개혁에 실패함으로써, 8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재정적 위기를 맞았다(2002).

라틴 아메리카는 위의 마지막 시기 전통적 이민수용국에서 이민송출국으로 전락했는데,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국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CEPAL의 “최근 2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일어난 대단위 이민의 주원인이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는 소득격차”라는 주장과 일치한다(200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 동안 추진해오던 수입대체산업 대신 자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했다. 따라서 전통 산업의 붕괴, 실업률 증가 그리고 복지예산삭감이 뒤따랐고, 악화된 생존환경에서 실직자들은 호구지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Pellegrino 2000).

2002년도 세계 이동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이것은 세계 총인구의 2.9%에 해당한다. UN은 선진국 인구의 8.7%에 해당하는 약 1억의 인구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주했고, 또한 개발도

상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7천만 명의 인구가 선진국으로부터 이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입(入)이민자의 규모는 대륙별로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오세아니아 순인데, 이를 대륙인구 대비 입(入)이민 비율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가 19.1%로 가장 높고, 북미가 13%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는 가장 낮은 1.1%를 차지한다(UN 2002).

그렇다면 북미의 이민 흡입요인(pull factor)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거대 노동시장, 경제호황, 낮은 출산율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노동수요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야기되는 경제 불안정, 높은 출산율 그리고 고실업률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으로 이민을 송출(push factor)하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 중반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라틴아메리카의 60년대 이전의 과거이민 -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이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나타났던 이민 - 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새로운 이민현상을 초래했다. 즉 과거 유럽인들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환상”으로 아메리카로 이주했다면, 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이민은, ‘자본’ 및 ‘상품’의 이동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격차에 의한 ‘노동력’의 이동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를 더욱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는데(Zolberg 2000), 세계화와 맞물려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이민 원인은 다음과 같다(Smith 2004).

첫째 : “역사적 배경”으로, 한 국가의 경제상황이 이민으로 발전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둘째 : “경제적 요인”으로, 개인은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단위의 이민은 ‘생존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단순히 이민 희망자 “개인의지”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이 처한 “사회 및 경제

의 구조변화”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Massey et al 1993, 433).

셋째 : “자녀들의 조기유학”도 이민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가족이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택(Ghatak)과 같은 학자는 자녀들을 세계 여러 곳으로 유학시키는 것을, 주식투자에서의 “위험 분산 시도”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1996).

넷째 : 이민희망자와 이미 다른 나라에 정착한 친인척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새로운 이민을 촉발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순환적이고도 반복적” 특징이 있다. 이민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창출되면 가족이나 친지를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새로 이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민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민사회에 쉽게 적응하는 효과도 있다(Massey 1990, 4-5).

다섯째 : 선진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이민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이민 수용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민 수용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력부족해소라는 목적에서 이를 외면한 채, 이민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게 된다.³⁾ 하지만 이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당 양국간에 존재하는 임금격차가 아니라, 선진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이민 수요라고 할 수 있다(Russel 1995).

결론적으로 이민이란 그것의 주체가 개인이냐 혹은 가족이냐에 따라, 아니면 한 국가 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국경을 넘는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 작동시스템의 구조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⁴⁾의 활동은 그 좋은 예이다. 세계경제개선을 위해 1944년 창설된 이 기구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

3) 선진국의 경우 외국에서 받아들인 노동력에 의지하는 비율이 증대되면서, 이민송출국 정부는 물론 수용국의 사회학자 및 이민전문가들로부터 이민법령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4) 현재 세계은행은 184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로 개발도상국에 경제차관을 지원하며 시장형성을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내 시장형성 그 자체가 선진국에 무한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유로운 거대자본 유입과 유출로 자국의 전통적 농경마을은 물론 또한 산업구조가 붕괴되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된다. 그런데 실업자 일부가 자국 노동시장에 흡수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선진국 노동수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주하게 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이민법학자 렐리오 마모라(Lelio Mármora)는 라틴아메리카로부터 거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량이민물결을 저지하려는 선진국 대부분이 기존의 법령만으로 제한적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선진국의 태도가 자국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문제만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민수용국은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Mármora 1993).

이렇게 경제의 세계화는 그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초국가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민 송출국들은 해외 곳곳에 존재하는 자국민들의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II. MERCOSUR와 이민 : 역내 및 역외이민 증가

III.1. MERCOSUR : 라틴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경제통합 시도

라틴 아메리카는 진작부터 하나의 연합을 시도해왔다. 독립투쟁을 할 때에도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추진해왔다. 1960년대 CEPAL은 이 지역의 산업화를 위해 시장 확대를 강조했는데, 1969년 안데스 협약(Pacto Andino)은 산업생산보다는 경제 및 상업기구 설치에 더 중요시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카리콤(Caricom)이 발족되기는 했지만, 1970년대 내내 경제 및 상업

기구 설치 계획은 진척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치적 협약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무역 및 투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진행되는 지역통합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부정하는 분위기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조성되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지역통합을 통한 경제 수준향상보다는 선진국과의 상호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표 1> MERCOSUR 회원국의 1994/2004년 일반경제지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4	2004	1994	2004	1994	2004	1994	2004
면적	2,780,400km ²		8,511,965km ²		406,751km ²		177,414km ²	
인구(2004년)*	37,740,400명		183,199,600명		5,469,600명		3,428,900명	
국민총생산(10억 달러)	200.2	433.5	426.3	1,375	0.9	28.17	1.3	43.67
1인당 소득(달러)	4,770	11,200	2,294	7,600	1,558	4,700	3,198	12,800
인플레이션(%)	0.3	13.4	2.47	14.7	0.9	14.2	3.5	19.4
경제성장률	-	8.7	-	-0.2	-	1.8	-	2.5
실업률(%)	9.3	17.3	4.5	12.3	2.1	18.5	9.4	16.0
극빈층(%)	-	51.7	-	*22.0	-	36.0	-	23.7
외채(10억 달러)	67.5	145.6	121.1	214.9	1.7	3.0	5.2	10.7
이자율(%)	0.9	-	4.7	-	1.3	-	5.6	-
외환보유고(10억 달러)	15.5	14.2	43.5	49.3	0.9	1.0	1.3	2.1

출처: Folha de S.Paulo 12/18/1994, Caderno MERCOSUL IDB 1994, Bankirer/Calvo 1995, CIA 2004, *은 1998 자료.

하지만 80년대 라틴아메리카는 거시경제 불안과 산업생산의 급감으로 거대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와 함께 내수시장이 축소되자, 수입대체산업으로 인한 불균형이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각 국가가 안고 있는 부채는 이제까지 선별적 그리고 선호적 (seletiva e preferência)이었던 무역정책을 버리게 하고, 시장개방 정책을 받아들이게 했다. 따라서 1987년 9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경

제협동 및 통합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CONO SUR라는 공동시장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이에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가세하여, 1991년 3월 26일 아순시온에서 4개국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17일에는 브라질의 오우르 뿌레투(Ouro Preto) 프로토콜에서 무역자유지대 및 다른 회원국과의 일괄 관세율을 정했다.

조약 조인 이후 회원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조화로운 상황을 형성하기 위해 3년간의 기간을 두며, 논쟁거리의 해결에 관한 기술적 법률 제정, 관세동맹에 관한 생산품의 목록 작성, 국제적인 법적효력을 언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MERCOSUR은 탄생초기 일부 우려의 시각과는 달리, 1996년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총생산과 일자리 창출, 다른 비회원국가와의 무역을 위한 관세 및 무역장벽 감소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MERCOSUR는, 그것이 현재 남미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토 및 인구 비율—영토 66.8%(13,731,738km²), 인구 47.30% (240,098,000명, 2000)—은 물론, 남미 총생산(GDP)의 약 60%(20조 5,605억 달러, 2003)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그 중요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노력은, 향후 FTAA을 통한 경제통합 및 공동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에 얼마만큼 대항할 수 있는지가 아직 미지수이다. 게다가 무차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진행은 이 지역의 사회 불균형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1998-2003년 사이 실업율 50% 증가, 사회보장제도 30% 감소 그리고 최저 임금자들의 구매력 25-50%가 감소했다(*Estado de São Paulo* 2004).

따라서 MERCOSUR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기구처럼 세계화의 물결 속에 미처 법적규제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James 2001).

<표 2> MERCOSUR 회원국에 대한 외국투자액(1980-1999)

(단위 : 백만불)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아르헨티나	5,344	6,563	9,085	27,828	47,114	62,289
볼리비아	420	592	1,026	1,564	3,827	4,843
브 라 질	17,480	25,664	37,143	42,530	132,734	164,105
칠 레	886	2,321	10,067	15,547	30,038	39,258
파라과이	218	298	402	973	1,991	2,217
우루과이	700	748	882	1,296	1,723	1,923
총 합 계	25,048	36,186	58,605	89,738	217,427	274,635
(참고 : 멕시코)	2,090	1,984	22,424	41,130	60,783	72,016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N.Y. and Geneva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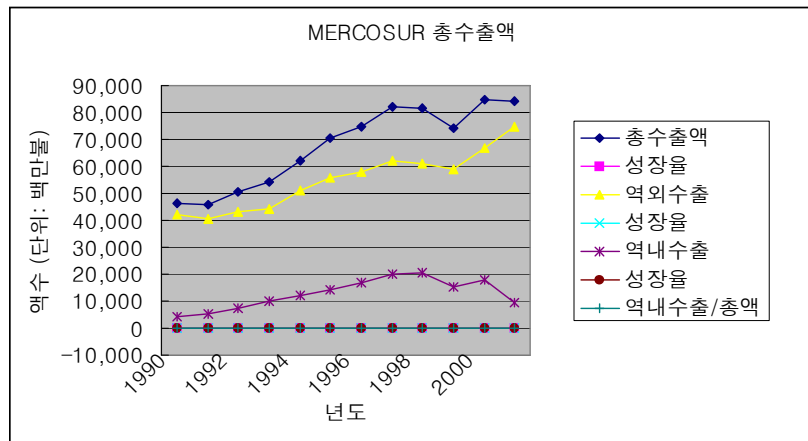
<표 3> MERCOSUR 역내 및 역외 수출증가 추이(1990-2000)

(단위 : 백만불)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수출액	46,402	45,891	50,463	54,122	62,113	70,402	74,998	82,342	81,323	74,320	84,659	84,279
성 장 율	-0.3	-1.1	10.0	7.3	14.8	13.3	6.5	9.8	-1.2	-8.6	13.9	-0.4
역외수출	42,275	40,788	43,246	44,095	51,157	56,019	57,960	62,289	60,972	59,158	66,961	74,742
성 장 율	-1.0	-3.5	6.0	2.0	13.7	11.7	3.5	7.5	-2.1	-3.0	13.2	11.6
역내수출	4,127	5,103	7,216	10,026	11,957	14,384	17,038	20,053	20,351	15,163	17,698	9,537
성 장 율	7.6	23.6	41.4	38.9	19.3	20.3	18.5	17.7	1.5	-25.5	16.7	-46.1
역내수출/총액	8.9	11.1	14.3	18.5	19.3	20.4	22.7	24.4	25.0	20.4	20.9	11.3

출처: IDB “경제통합과 무역” 2002년 12월 보고서

<그림 1> MERCOSUR 총수출액



III.2. MERCOSUR이후 역내이민

1991년 MERCOSUR의 탄생으로 모든 회원국의 총생산과 역내 및 역외 무역량은 증가했다. 특히 1992-1997년 사이 총수출과 역외수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1997년 후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그것은 아시아의 재정위기, 브라질 IMF 개입사태와 그에 따른 브라질 화폐 헤알의 평가절하 그리고 아르헨티나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⁵⁾ 이러한 이유로 역내수출 역시 1998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생산은 1994년부터 10년 동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3배,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30-40배 증가했다.

역내이민의 경우, 브라질 사회학자 네이지 빠따하(Neide Patarra)는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04). <표 4>는 70년대 역내 이민 중 출(出)이민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는 파라과이였고, 또한 입

5)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헤롤드 제임스는 이들 국가신용상태가 문제되어 공동시장형성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기 때문에, MERCOSUR의 경제통합시도는 이미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ames 2001).

(入)이민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는 아르헨티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로 향한 입(入)이민은 이미 80년대부터 시작되어, 80년대 약 140% 그리고 90년대 약 190% 증가했다(<표 5>참고).

MERCOSUR 태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역내이민은 사실 경제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였다. 이들이 더 나은 직업이나 교육시스템을 좇아 이웃국가로 이동한 역내이민은, 이들이 보내는 고국송금으로, 사실상 송출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Chakiel and Villa 1992).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역내이민은 전혀 새롭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통된 역사와 문화 공유 탓에, 국가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국경지역 이민을 해당 국가들은 특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국경을 초월한 동일한 사회발전 과정의 확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Palau 1997).

<표 4>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MERCOSUR 역내이민현황

국 가	MERCOSUR 역내 이민 현황					
	역내 출(出)이민			역내 입(入)이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아르헨티나	63,653	89,640	99,570	336,950	411,307	418,326
파라과이	251,668	278,430	271,660	62,428	143,438	158,327
우루과이	72,645	133,273	158,823	34,959	33,424	41,289
브라질	97,191	152,257	154,516	50,820	65,431	66,627
총합계	485,157	653,600	684,569	485,157	653,600	684,569

출처: IMILA/CELADE 2000

<표 5> 90년대 MERCOSUR 역내이민

국 가	입(入)이민		출(出)이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251,130	파라과이	47,846
	칠레	218,217	칠레	34,415
	볼리비아	143,735	우루과이	26,256
	우루과이	133,653	브라질	25,468
	브라질	33,543	볼리비아	17,829
		780,278		151,814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17,829	아르헨티나	143,735
	브라질	8,586	브라질	15,694
	페루	5,805	칠레	7,729
			페루	3,216
	32,220		170,374	
브라질	아르헨티나	25,463	아르헨티나	33,543
	칠레	20,437	파라과이	104,752
	파라과이	19,018	우루과이	13,512
	우루과이	22,141	-	-
	볼리비아	15,694	-	-
		102,753		151,807
칠레	아르헨티나	34,415	아르헨티나	218,217
	볼리비아	7,729	브라질	20,437
	페루	7,649	베네수엘라	20,787
		49,793		259,441
파라과이	브라질	107,452	아르헨티나	251,130
	아르헨티나	47,846	브라질	19,018
		155,298		270,148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26,256	아르헨티나	133,653
	브라질	13,521	브라질	22,141
	베네수엘라	7,374	베네수엘라	5,454
		47,151		161,248
총 합 계	1,167,493		1,028,212	

출처: IMILA/CELADE 2000

III.2.1. 아르헨티나 : 역내 최대 이민 선호국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MERCOSUR이후 역내이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원국별 출(出)이민 대비 입(入)이민의 증가는 단지 아르헨티나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입(入)이민 대비 출(出)이민 수는 약 9배 높음). 그것은 아르헨티나가 경제통합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회원국 대부분에서는 구조조정이후 해직된 노동자들이 생산에 재투입되지 못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더 증가했다.⁶⁾ 일부 도심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60% 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급작스럽게 늘어난 3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수요를 자국에서 제 때에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웃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였다(Texidó 2004, 41).

역사적으로 국경이민은 주로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파라과이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의 북동부인 포르모사(Formosa)주, 차코(Chaco)주, 코리엔테스(Corrientes)주와 미송이스(Misiones)주에서 면화와 마테차를 재배했는데, 파라과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볼리비아사람들은 북동부의 살타(Salta)주, 후후이(Jujuy)주 그리고 투쿠만(Tucumán)주에서 담배와 사탕수수, 멘도사(Mendoza)주에서는 포도를 재배하거나, 도시에서 벽돌을 만들거나 건설과 관계된 일에 종사했다. 이들은 아주 고집스러우며 힘든 일을 잘 해낸다는 특징을 보였다. 남부 파타고니아 지방으로 진출한 칠레 사람들은 알토 발리 도 리오 네그로(Alto Vale do Rio Negro) 계곡에서 사과와 배를 수확하거나, 수력발전소나 관개(灌溉) 시설과 같은 공사에 참여했다. 우루과이 사람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했는데, 이들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문화를 갖은 탓에 아르헨티나 문화에 쉽게 동화된 특징을 보였다. 브라질 사람들은 주로 미송이스(Misiones)주에 정착했는데, 일반적으로 두 그룹 - 유럽출신의 소농과

6) 2004년 아르헨티나 산업 분포는 1차 산업 11.1%, 2차 산업 34.8%, 3차 산업 54.1%으로 나타났다.

소작인⁷⁾으로 나뉜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 지역에 정착하여 차와 나무재배에 종사했는데, MERCOSUR이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Santillo 1998).

MERCOSUR가 태동하기 바로 직전(1991)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총인구 중 이민(외국태생)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고, 그 중 3%가 인근 이웃국가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이며(Santillo 1998), 국경시대에서만 81만 7,144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총인구에 비해 그리 큰 비중은 아니지만(0.2%), 국경이민의 발단이 19세기 국가 경제발전 계획과 관계가 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민 수용정책 하에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약 7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이 때 국경 이민도 승인했다.⁸⁾

경제통합이후 아르헨티나에 나타난 또 다른 이민은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닿지 않는 페루로부터의 많은 실업자들의 유입이다. 이들 페루 노동자들 역시 아르헨티나 노동시장의 특징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적은 월급을 수용하고 노동조건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정도에 불과했다(Benencia and Gazzotti 1995).

결론적으로 이들이 아르헨티나를 선호한 이유는 ① 이웃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아르헨티나의 농업생산율과 낮은 인구증가율, ② 이웃국가의 실업자 및 비숙련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더 높은 구직율, ③ 이웃국가들의 정치적 탄압과 불안한 정국, ④ 가족과의 재결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II.2.2.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인구 감소

MERCOSUR 역내이민에 관한 또 다른 자료로 2004년도 발간된 미국의 CIA통계는 각국의 인구이동비율을 전년도 기준으로 NMR(Net Migration Rate)라는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NAFTA의 미국 3.41, 캐

7) 공터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자들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8) 1869년 국경이민의 수는 41,360명으로 집계되었다.

나다 5.96, 멕시코 -4.87이라면, MERCOSUR의 아르헨티나 0.61, 브라질 -0.03, 파라과이 -0.08, 우루과이 -0.32(볼리비아 -1.32, 칠레 0)이다.

MERCOSUR 전후로 역내이민과 역외이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8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로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

이 때 인구가 140만 명 감소한 브라질은(Patarra 2004),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⁹⁾

III.3. MERCOSUR이후 역외이민

III.3.1. 경제통합이전부터 시작된 회원국의 인구감소

앞의 CIA통계(2004)와 <표 5>는 MERCOSUR 회원국 중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입(入)이민의 수보다 출(出)이민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역내이민보다 오히려 역외이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MERCOSUR이 태동된 이후, 90년대 브라질인들의 파라과이로의 이주는 10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브라질인들의 역외이민 - MERCOSUR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EU나 NAFTA로 향한 이민 - 도 늘어, 미국은 브라질 사람들의 해외거주 1위 국가가 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브라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국의 생활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중등교육을 받은 중산층들이 이민을 택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 시대 통신 및 방송매체의 발달이 소비와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중산층의 욕구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Pellegrino 1995).

그렇다면 경제규모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큰 브라질에서 MERCOSUR 역내이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브라질 총생산(GDP, 13,750억불)이 비록 아르헨티나(4,335억불)보다 3배나 크지만, 1인당 국민소득(GNP)에 있어서 브라질

9) 이 때 재브라질 한인 불법체류자들도 임시 영주권을 받는 혜택을 받았다.

(7,600불)이 아르헨티나(11,200불)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는 빈부의 차가 심한 브라질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또 다른 하나는 이민자들이 브라질 노동시장에서 브라질 출신의 노동자들과의 경쟁이 아주 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실제로 브라질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총인구의 43%인 7,200만 명, 또한 16세 이하인구도 총인구의 33%인 5,530만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CIA 2004).

III.3.2. 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

1980년대 1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주민들의 미국으로의 이주가 2배로 증가하면서(Villa and Pizarro 2000, 54),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이 80년대 선진국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이민 송출국으로 전환되었다.¹⁰⁾ 따라서 MERCOSUR계 미국 태생 인구도, 80년대 1,400만 명에서 90년대 2,000만 명으로 늘어, 평균 40.39% 증가율을 보였다.

<표 6> MERCOSUR 국가출신의 미국출산 증가율(1980-1990)

국 가 별	증 가 율	1980	1990
아르헨티나	13.21%	68,887	77,986
브 라 질	100.73%	40,919	82,489
파라과이	67.11%	2,858	4,776
우루과이	37.15%	13,278	18,211
볼리비아	100.73%	14,468	29,043
칠 레	43.26%	35,127	50,322
평 균	40.39%	14,080,100	19,767,316

출처: IMILA/CELADE, 2000

10) 그 원인을 빌라(Villa)는 70년대 라틴아메리카로의 입(入)이민 감소에서 찾고 있다. 즉, 입(入)이민 감소는 “선진국과의 산업 및 경제발전의 단절”을 야기하여, 국가간의 빈부차를 더욱 벌였다고 본 것이다(Villa 1996).

<표 7> 1990년도 MERCOSUR지역과 북미와의 정식 이주현황

1990년도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입(入)이민		미국과 캐나다로의 출(出)이민	
		미 국		미 국
아르헨티나	미 국	9,755	미 국	77,986
	캐나다	777	캐나다	11,740
볼리비아	미 국	2,503	미 국	29,043
	캐나다	1,435	캐나다	2,335
브 라 질	미 국	11,363	미 국	82,489
	캐나다	1,112	캐나다	9,360
칠 레	미 국	6,249	미 국	50,322
	캐나다	1,151	캐나다	23,880
파라과이	미 국	1,366	미 국	4,776
	캐나다	1,373	캐나다	5,045
우루과이	미 국	1,451	미 국	18,211
	캐나다	388	캐나다	5,710
(합 계)		38,923		320,817
멕시코 (참 고)	미 국	194,619	미 국	4,298,014
	캐나다	3,011	캐나다	27,485
(합 계)		197,630		4,325,499

출처: IMILA/CELADE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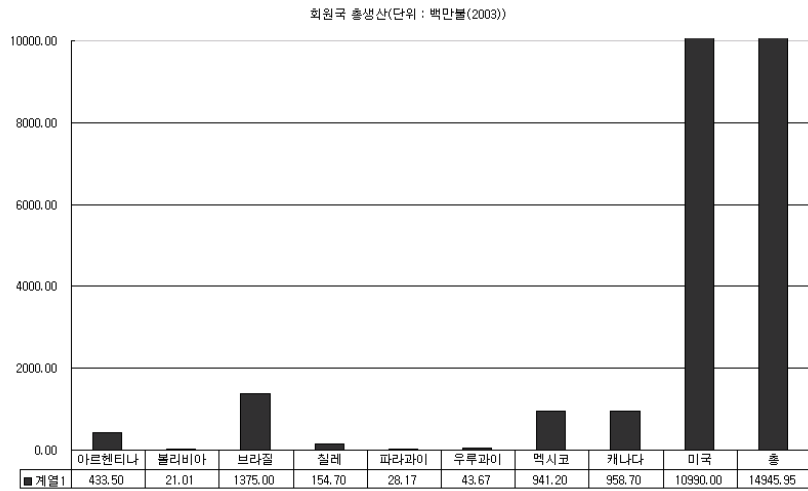
2004년도 미국의 CIA 자료는 1990년대 MERCOSUR 출신이 미국 및 캐나다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브라질(31.39%), 아르헨티나(29.67%), 칠레(19.14%), 볼리비아(11.05%), 우루과이(6.93%), 파라과이(1.82%)이며, 캐나다의 경우는 칠레(41.12%), 아르헨티나(20.21%), 브라질(16.12%), 우루과이(9.83%), 파라과이(8.69%), 볼리비아(4.03%)라고 밝히고 있다(CIA 2004).

빌라와 마티네스(Villa and Matines 2000)는 MERCOSUR 이후 아르헨티나 역외이민의 특징을 분석했는데, 이를 브라질을 비롯한 MERCOSUR 전체 일반 회원국에 일반 확대 적용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첫째, 고급노동력 손실로 “두뇌유출”을 염려하게 되었으며, 둘째,

이민자들이 수용국 사회에 전적으로 적응하지 않고, 초국가적 커뮤니티(Comunidades Transnacionais)를 건설했으며, 셋째, 선진국에 형성된 자국 커뮤니티의 잠재 경제력은 물론 이민자들의 고국으로의 송금액수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프 2> FTAA 주요 회원국 총생산 비교



출처: CIA 2004

IV. 브라질의 경우 : 파라과이에서 미국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70년대 커피농장의 커피 재배자들이나 배고픈 비숙련노동자들 약 10만 명이 파라과이로 이주했다.¹¹⁾ 그리고 MERCOSUR이 태동되자, 또 다른 이주물결이 일어나 현재는 약 50만 명이 거주

11) 같은 시기 아마존 밀림지역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매던 수천 명의 가림페이루(garimpeiros)들은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 인디언 보호구역이나, 기아나 내륙지 방향으로 진출했다.

하고 있다.¹²⁾

그러나 80년대 중반 경기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 북미 그리고 일본으로 대거 이주했다. 1990년까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약 8만 3천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유학생이었다. 그러던 것이 MERCOSUR가 태동되면서 1992년에는 캐나다로 약 7천 명, 포르투갈로 약 2만 명, 그리고 일본으로 약 10만 명이 이주했다(Conway 1998, 276-277).

그런데 이들의 빈자리는 볼리비아 사람들로 채워졌다. 볼리비아인들은, “제품”이란 의류봉제업에 종사하는 재 브라질 한국 교민사회(약 5만 명)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

하지만 1998년 IMF의 브라질 개입사태는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켜, 현재 약 1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IV.1. MERCOSUR 이전 : 국경이민의 역사적 배경

브라질인들의 파라과이로의 국경지대 이민을 연구한 팔라우와 베론(Palau and Verón 1989)은, 브라질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했던, 파라나강과 카아과주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이들 브라질이민들이 법적으로는 파라과이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의 문화는 “브라질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라과이 동부에는 파라과이 총인구의 96%가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문화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관계로, 원래 파라과이 고유의 문화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들어온 이민자들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국경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 국경지대 거주자들의 특징은 ‘단기 체류’와 ‘순환이민’이다. 그런데 이곳 거주자들은 거의 모든 활동을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이다. 즉 그들은 브라질로 매일 출근하는 “이중 국적의 노동자(trabalhador binacional)”이며, 브라질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소비하는 “이중 국적의 소비자(consumidor

12) 현재 MERCOSUR 역내 총생산 중 브라질은 38% 그리고 파라과이는 1%를 차지한다.

binacional)”, 그리고 학교조차도 브라질로 다니는 “이중 국적의 학생 (estudante binacional)”이었던 것이다(Sales 1994).

그렇다면 경제통합이전인 80년대 브라질은 왜 한편으로 다른 남미 국가로부터 2만 8천명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규모가 훨씬 적고 또한 낙후된 파라과이로 이주했던 것일까?

<표 8> 브라질이 받아들인 대륙별 이민자 현황(1981-1991)

지 역	브라질이 받아들인 외국인 수	분포율
유 럽	15,346	24.05
북 미	8,742	13.70
남 미	28,083	44.00
중 미	1,283	2.01
아프리카	1,801	2.82
아 시 아	10,793	16.91
오세아니아	317	0.50
기 타	453	0.71
총 합 계	63,818	100.00

출처: IBGE 인구통계 1991, NEPO/UNICAMP 자료

IV.1.1. 브라질측 송출요인

IV.1.1.1. 이타이푸(Itaipu) 수력발전소 건설

브라질인들의 파라과이로의 국경이민의 발단은 1973년 시작된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 일부는 브라질(780km²)에, 또 다른 일부는 파라과이(570km²)에 걸친 총 면적이 1,350km²에 달하는 남미 최대 수력발전소 - 건설과 관계가 있다. 브라질의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주 및 파라나(Paraná)주의 농민들 중, 농업의 현대화에 적응하지 못해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대부분 브라질 중서부 국경지역이나 아니면 브라질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의 북부로 이주했다. 그런데 중서부 국경지방에 이주한 농민들 중, 특히 파라나(Paraná)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건설에 종사했다. 댐이 건설되기 전, 댐 주변에는 42,444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이 중 38,455명이 농부들이었다(Germani 1982). 댐 건설로 침수되는 지역 주민들은 파라과이 국경지대로 이민을 했는데, 이 사건은 나중에 MST운동(무토지 농민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¹³⁾

브라질이 현대화과정에서 농촌 사람들을 이웃 국가로 추출시켰다면, 파라과이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농작물산업에 주력했다. 특히 콩과 면화의 재배와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1970년대 파라과이의 총생산량의 60%를 1차 산업이 차지했다.

파라과이는 독재자 스트로에스너(Stroessner)시절 국경지대의 농업 현대화에 주력했다. 브라질에 비해 파라과이의 농토는 값도 싸고 비옥했다. 따라서 파라과이 정부는 제2의 농업현대화를 부르짖으며, 60년대 말 브라질 남부지방의 “백인농민들” 특히 “독일인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들 브라질 남부지방의 백인들은 자기들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은 북부의 “흑인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땅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생산하게 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당시 브라질 전역에서 거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이농현상 중 하나의 변이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이, 브라질의 “서진정책”¹⁴⁾을 따라, 농사지를 목적으로 농토를 찾아 나선 단순한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이, 이웃국가의 비옥한 토지에 이끌려, 국경지대를 선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파라과이로 진출한 이민들 – 백인(독일인)들과 흑인들 – 의 활동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백인(독일인)들이 파라과이 현지 농민들과 합류하여 농업자본을 만들어냈다면, 흑인들은 국경지

13) 브라질 히우 그란지 두 술州에서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 중 일부는 1970년대 정부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북부 영토확장사업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하여 북쪽으로 이동했고 또 다른 일부는 땅을 개간할 목적으로 자비로 파라과이로 이주했다. 그런데 위의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농민들은 80년대 “무토지 농민운동(MST - Movimento Sem Terra)”이 일어나자, 고향을 떠나 이에 합류함으로써 일정한 사회계급을 형성했다(Sales 1994).

14) 브라질은 현재에도 자국의 영토를 끊임없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는 북부나 중서부와 같이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하는 정책을 씌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일명 ‘서진 정책’이라 한다.

대의 울창한 숲을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지 및 도로를 개간하여, 장차 더 많은 자본이 브라질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파라과이 정부의 ‘농촌복지국(Instituto de Bem-Estar Rural)’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출신의 소농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그들을 대사업가 혹은 투기자로 만들었다(Fogel 1990).

1970년대 파라과이 국경농업의 현대화는 그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1960-1983년까지, 국경지대에 645개의 농장이 건설되었는데, 그중 단 14%만이 개인 소유였고, 나머지는 공공의 성격을 띤 공동농장이었다(Palau and Heikel 1987).

파라과이로 이주한 브라질인들에 대한 통계는 아주 부정확하다. 브라질의 피게레이두(Fequeredo) 정부시절(1979-1985)에는 약 30-50만 명의 브라질인들이 이주했다고 하는데, 카톨릭 교단은 1972-1977사이 이주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주로 파라나(Paraná)주 63%,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주 18%,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주 12% 그리고 북동부 및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 7%로부터 이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이 직접 파라과이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우선 파라나(Paraná)주로 이주한 이후 그 다음단계로 파라과이로 이주했다는 것이다.¹⁵⁾

MERCOSUR 태동직후, 1992년 파라과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약 11만 2천명의 브라질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1995년 브라질 정부는 파라과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약 25만 명이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불법이민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MERCOSUR가 태동한 직후 발생한 이민의 증가로도 볼 수 있다.

IV.1.1.2. 정치적 해외 망명

남미의 국제이민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군정을 피해 해외로 망명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 국민들은 1980년대 자기의 조국에 민정이 수

15) 이들의 인구감소는 파라과이의 토지개방정책과 관계있다.

립되자 조국으로 돌아갔다. 특히 칠레의 경우, 1973년 쿠데타로 수천 명이 유럽을 비롯하여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멕시코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돌아갔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그 망명객의 수가 칠레에 미치지 는 않지만, 칠레인들보다 먼저 서둘러 조국으로 귀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980년대 경기침체와 불황을 겪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외국 노동자들을 추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만연된 실업과 조직화된 노동조합에 의해 이들을 추출하라는 압력이 높았지만, 민주화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을 추방하지 않았다. 군사정권 이후 민정이 들어선 파라과이 역시 자국의 값싸고도 비옥한 동부 토지를 장악한 수십만 명의 브라질 농민들을 쫓아내라는 내부의 압력을 감수했다.

IV.1.1.3. 브라질 토지개혁의 실패

1985년 브라질에 들어선 문민정부(Nova República)는 제일 먼저 토지개혁을 시도했다. 당시 브라질 정부정책이 단순한 토지개혁이었던지 아니면 단순히 땅의 민주적 재분배였든지 간에, 그 결과 많은 브라질 농민들이 파라과이로 이주했다.¹⁶⁾ 정부가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가함으로써, 외국의 많은 거대 기업들이 브라질 토지를 매입하면서 진출했다. 이 때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했던 소농들이 무너지면서 이웃국가로 월경했다.

브라질인들의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로의 이민은 이들 국가의 값싼 토지가격과 관계가 있다. 농업과 관련된 브라질인들의 이웃국가로의 이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지주들이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농사를 짓거나 투기목적으로 이웃 국가의 값싼 농토를 구입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이 전혀 없는 농촌 노동자들이나 소농들이 브라질 농업의 현대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토지를 잃고 생존을 위해 이

16)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난 브라질 농민들의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로의 이주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와 관계있다.

웃 국가로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대부분의 농촌노동자들의 이민은 바로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데, 이는 브라질의 고질적인 사회문제 즉 부의 불평등한 재분배구조 때문이다.

사실 후자그룹의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로의 이주는 전자그룹에 의해 일어났다. 이웃 국가의 농토를 브라질 투자자들이 먼저 구입하면, 농민과 노동자들이 그들에 고용되어 옮겨갔다. 이 때 대부분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한 농작물의 수확이 끝날 때까지 현지에 머물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우루과이 국경 근처에서 밭에서 쌀농사를 짓는, 브라질 최남단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州 출신의 '그란제이루스(granjeiros)'들이다.¹⁷⁾ 경제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우루과이의 값싼 농토를 산 경우도 전자의 경우처럼 가족들은 고향인 바제(Bajé)나 동 페드리투(Dom Pedrito)와 같은 도시에 남겨두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일부 낙농업자들이 한때 젖소를 키우기 위해 우루과이의 비옥한 토지를 사들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쌀 경작지를 선호했다.¹⁸⁾

IV.1.1.3.1 농토가 목축업을 위한 들판으로 변신 :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혁명”

브라질 농민들의 이웃국가로의 이주는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브라질의 정치·사회 구조—단일 농작체제와 지방의 대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명령체제(mando do latifundio rural)—에 원인이 있다. 식민 기간 300년 동안 지속된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대농장 체제는 주인과 노예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유지시킴으로써, 지금도 농민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웃국가를 불법으로 ‘순환’하고 있다.

브라질은 비록 1889년 노예해방으로 “자유노동자”를 탄생시켰지

17) 브라질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주로 밀을 경작하는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는데, 브라질 인들의 생산은 우루과이인들보다는 높게, 아르헨티나인들보다는 낮게 나타났다(Sales, 1994).

18) 남미에서는 쌀을 밭에서 재배한다.

만, 실질적 그들의 삶의 조건은 전혀 향상되지 못해,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는 하층계급의 ‘불법노동자’로 전락시켰다. 구조적으로 지배사회와 거리가 먼 이들 하층계급의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월경하여 이웃나라의 국경지대의 땅을 개간하며 연명했다. 이들 브라질 농촌 지방의 노동자들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내내 진행된 산업화 및 공업화의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과거의 노예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생활을 영위했다(Sales 1994).

브라질 경제는 목축업과 사탕수수, 콩, 오렌지 농업으로 약 15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런데 농업보다 목축업에 무게를 두면서 개간이 가능했던 농지가 목축업을 위한 들판으로 돌변했다. 이것은 70년대 아주 짧은 기간인 10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영국의 역사학자 폴라니(Polany)가 명명한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혁명(a revolução dos ricos contra os pobres)”에 비유되고 있다.¹⁹⁾

IV.1.1.3.1 토지가격 상승

브라질인들의 국경이민의 원인은 토지개혁 실패 외에 브라질의 토지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1964년 들어선 군사정권이 1970-198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토지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국경지대 농토의 경우, 60년대 미화 100불이었던 것이 80년대 600불로 치솟았고, 상파울루도시의 토지가격은 같은 시기 200불이었던 것이 1,000불로 상승했다(Reydon and Plata 1995, 164). 브라질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했지만, 이에 편승하지 못한 기술이 없는 혹은 땅을 빼앗긴 힘없는 농민들은 계속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19) 한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부자들이나 엘리트들이 오히려 사회질서를 교란한다는 내용으로,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Polany 1980). 이러한 현상은 브라질이 독립한 이후 근대화 및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국자본의 대 브라질 농업투자가 이루어진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출위주의 브라질 커피산업을 급속히 근대화시키면서, 농촌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IV.1.2.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흡입요인

IV.1.2.1. 파라과이측 흡입요인

1970년대 파라과이-브라질의 마투 그로수(Mato Grosso)주 및 혼도니아(Rondonia)주를 합친 것보다 작은 영토-는 아주 짧은 기간동안 브라질 남부가 받아들인 이민보다도 더 많은 수의 브라질인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였다(Salim 1995). 이것은 파라과이 정부의 “동진정책”과 브라질정부의 “서진정책”과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60년대 브라질의 이농현상은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주,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주,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로부터 파라과이와 가장 인접한 파라나주로 일어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라질인들의 파라과이로의 이주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파라나(Paraná)주를 경유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국경을 넘어 파라과이로 이주한 것이 특징이다.²⁰⁾

IV.1.2.1.1. 토지개방정책 : “브라질과이우스(brasilguaiois)”탄생
스트로네르(Stroessner)시대 파라과이 정부는 농업발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연구소(Instituto de Bem-Estar Social)가 입안한 외국인 토지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법을 개정하면서, 자국의 토지를 개방했다. 그러자 80년대 말, 브라질 소농과 기업가들은 토지개간이나 투기목적으로 파라과이의 땅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이주했다. 이 때 생겨난 용어가 “브라질 사람들(brasileiros)+ 파라과이 사람들(paraguaiois)”의 합성어인 “브라질과이우스(brasilguaiois)”이다.

IV.1.2.1.2. 마약 및 무기의 불법 거래

파라과이의 동부 국경지대가 “무시무시한 국경지대(fronteira seca)”로 불리우는 이유는, 이곳에서 가축, 목재, 공산품은 물론 코카인을 포함한 여러 마약종류와 무기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 1970/80년 한국 불법이민은 브라질인들이 파라과이로 진출한 경로와 정 반대로 파라과이로부터 쿠리치바나 상파울루로 진출하였다.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건설 때문에 시작된 불법거래는 경제적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 페르난두 마씨 정부는 1990년에 이것을 정식으로 파라과이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자동차를 포함한 수많은 브라질 상품들이 파라과이의 시장에 넘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라과이의 1차 상품인 목재, 천연가죽, 면화 등이 브라질로 밀수출 되었다. 또한 파라과이 정부는 삼각무역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브라질의 주 농산물인 커피와 콩을 밀수하여 그것들을 파라과이산으로 둔갑시켜 다른 나라로 수출했다. 그리고 대만, 한국, 미국으로부터 전자 및 가전제품들을 수입하여, 브라질 도시로 공급했다. 공급은 물론 불법이었다. 그런데 그것의 매개체는 브라질 관광객을 가장한, 일명 “싸콜레이루스(sacoleiros)”라 불리는, 보따리 장사들이었다. 그들은 제한된 범위내의 상품을 구입하여 “우정의 다리(Ponte de Amizade)”건너 브라질로 돌아갔다.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의 밀조차도 파라과이를 거쳐 브라질로 흘러 들어갔다.

IV.1.2.2. 아르헨티나측 흡입요인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 말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을 금지하는 법을 입안했다. 그럼에도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국경지역에 불법으로 아르헨티나의 토지를 매입했다. 따라서 브라질 국경과 인접한, 인구 14,322명의 벨그라모 지역(O Departamento General Belgramo)의 베르나르두 데 이리고옌(Bernardo de Irigoyen)이라는 도시에는 브라질 사람 6,688명이 한데 모여 살았다. 이 지역은 86%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시골로, 인구밀도(1명/1km²)가 아주 낮은 곳이다. 도심지역에는 주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주로 브라질 사람들이(50%이상) 거주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불법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주했다.

아르헨티나의 동부에 위치한 미시오네스(Misiones)라는 지역은 비옥한 토질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19세기 내내 브라질출신의 독일 및 이탈리아인의 후예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나무를 채취했다. 20세기 초반 브라질인들의

이민물결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민에 대한 제한법령이 발효되자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아예 사라졌다. 그러나 70년대 미시오네스(Misiones)지역에 브라질 이민이 다시 늘어 약 5만 명이 정착했다. 이들 대부분은 토지를 조금도 소유하지 못한 무토지 농민으로 주로 농업과 돼지사육에 종사했다(Espindola 1992).

IV.1.2.3. 우루과이측 흡입요인

우루과이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면에서 파라과이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70년대 우루과이에는 농·목축업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많은 우루과이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브라질 사람들에게 매각했다. 이 때 브라질 사람들은 우루과이의 비옥한 토지를 아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레이돈과 플라타(Reydon and Plata 1995)는 브라질인들의 우루과이 토지매매 상관관계 연구에서, 1986년 플라노 꾸루자두(Plano Cruzado) 경제조치 바로 직후, 브라질인들의 투기목적에 의한 토지매입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987년 브라질 토지시장이 위축되자, 우루과이 정부는 브라질인들의 자국 토지매입을 위해 유연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우루과이의 토지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IV.1.3. 파라과이로부터 “브라질과이우스(brasilguaaios)의 귀환

브라질인들의 파라과이로의 이민물결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브라질의 첫 개척자들이 국경지대의 농토를 개간해 놓자, 나중에 자본력을 갖춘 사람들이 진출하여 개척자들을 그곳으로부터 추출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의 개척자들을 수탈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그들을 순환이민자들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들 “브라질과이우스(brasilguaaios)”의 귀환은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인 무토지농민운동(MST)의 발단이 되었다. 비빌 언덕조차 없던 이들이 조국에 돌아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뿐이었다. 이들은 들이나 숲에서 야영생활

을 하면서, 브라질 정부와 사회에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통한 수혜는 바로 자기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의 귀환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Sprandel 1992, 56).²¹⁾

브라질 사르니(Sarney)정부는 1985년 ‘토지개혁과 농업 발전국(Ministério da Reforma e do Desenvolvimento Agrário)’을 창설하고, ‘토지 개혁을 위한 국가 발전 프로그램(Plano Nacional de Reforma Agrária)’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런데 지주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방민주연합(UDR-União Democrática Ruralista)’을 설립하며 반격했다. 그러자 의회는 생존과 직결된 농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부정하며 1988년 새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또 다시 지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브라질 사법부는 20세기 후반에도 극히 “폐쇄된” 그룹의 이익만을 대변했다.²²⁾

이제까지 살펴본 브라질 농민들의 파라과이로의 이주는 NAFTA 회원국 내 멕시코 농민들의 미국으로의 이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²³⁾ 왜냐하면 “이민희망자들의 경쟁력”이 주요변수로 작용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이주였기 때문이다(Schuck 1998).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멕시코 농민들처럼, 아무 기술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자유주의 시대 나타난 ‘새로운 소외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Portes 1999).

21) 종교기관인 Mato Grosso do Sul(마토 그로스 두 술)주 소속의 성직자 토지위원회(Co-missão Pastoral da Terra do Mato Grosso do Sul)가 “브라질과이우스(brasilguaiois)”의 귀환을 후원했다. 이들의 야영생활은 브라질 전역에 토지개혁 투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야영지 그 자체가 무토지 농민들의 정착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해, 브라질 MST 운동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이들의 야영 생활은 브라질의 어떤 공식 기관이나 일부 그룹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농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나중에 “토지개혁과 국가발전 프로그램(Plano Nacional de Reforma Agrária)”을 탄생시키게 된다.

MST 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브라질 북부지역에서는 지주들이 살인청부업자들을 시켜 농민들을 무참히 참살한 ‘카라자스(Carajas)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경악한 브라질 국민은 토지개혁을 통한 농민들의 삶의 개선이야말로,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급선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22) 영국은 토지소유권만이 개인의 자유라고 18세기에 이미 인정했다.

23) Papademetriou(2003)와 최금좌(2004) 참고.

IV.2. MERCOSUR이후 : 역내이민에서 역외이민으로

MERCOSUR 경제통합 이후, 브라질 사회에 나타난 이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의 가난한 농부들이 이웃국가 파라과이의 값싸고 비옥한 토지에 이끌려, 파라과이로의 이주가 증가했는데, 이 때 약 10만 명이 이주했다(<표 5>).

둘째: <표 9>는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입(入)이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고급인력은 남미 최대 메트로폴리탄인 상파울루시(市)로 집중했다.

셋째: 남미에서 비교적 산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의 일부 숙련노동자들 역시 브라질 상파울루시(市)로 집중했다(Patarra 2004).

<표 9> 브라질 정식 입(入)이민자들(1993-2000)

구 분	기 간					
	1993-1996	비율(%)	1997-1999	비율(%)	2000	비율(%)
이탈리아/독일/프랑스/ 영국/포르투갈/스페인	13,828	30.17	16,586	33.25	3,086	32.50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3,285	7.17	3,287	6.59	447	4.71
미국/캐나다	8,783	19.17	9,762	19.57	1,996	21.02
일 본	2,695	5.88	2,100	4.21	284	2.99
기 타	17,236	37.61	18,153	36.39	3,683	38.78
총 합 계	45,827	100.00	49,888	100.00	9,496	100.00

출처: 브라질 노동부 및 외교부 SRT/CGI, CNPD 2000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해당되는 전문가 집단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은, 이미 NAFTA의 경우에서 증명되었듯이(Martin 1997), 선진국의 다양한 전문분야를 이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브라질 노동부는 이들 유럽 및 남미의 전문가 집단이 아주 일정기간만 브라질에 머무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표 9>를 자세히 살펴보면, MERCOSUR 태동 이후 1993년부터 2000년도 사이, 남미로부터의 입(入)이민의 수는 7.17%에서 4.71%로 점차 줄어드는 반면, 유럽으로부터는 30.17%에서 32.50%, 그리고 북미로부터는 19.17%에서 21.02%로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FTAA가 형성되면 남미와 북미간의 인적교류는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때의 노동력 수요는 과거와 달리 고급인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강화될 것이다.

V. 맺음말 : MERCOSUR 지역에서 NAFTA 지역으로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한 국가 내에서의 계층간의 빈부의 차는 물론 국가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어, 대량인구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계층은 농촌의 비숙련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거나 아니면 노동조건이 더 나은 이웃 국가나 EU나 NAFTA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즉 국가간에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선진국으로 대량 이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통합초기 나타난 농민들의 역내이민 증가는 경제통합 그 자체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 경제통합이전 60년대 브라질정부의 서진정책과 파라과이정부의 동진정책 및 토지개방정책, 그리고 70년대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건설이 국경이민의 원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브라질의 “부의 불평등 문제”와 80년대 이를 시정하고자 한 문민정부의 “토지개혁” 실패였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더 큰 EU나 NAFTA의 선진국으로 향한 이민이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 미국은 해외거주 브라질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역외이민의 송출 요인(push factor)는 MERCOSUR 경제통합이후 이 지역을 강타한 아

시아의 재정위기(1997), 브라질에 대한 IMF의 개입사태, 그에 따른 브라질 화폐 헤알의 평가절하, 그리고 아르헨티나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역외이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EU나 NA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MERCOSUR의 경제규모이다. 즉 MERCOSUR 모든 회원국의 이민희망자들은 경제규모가 작은 이웃국가보다는, 경제규모가 더 큰 미국으로의 이민을 선호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흡입요인(pull factor)은 미국의 경기호황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증가, 그리고 이미 미국내에 형성된 강력한 이민자들의 네트워크가 가동했기 때문이다.

MERCOSUR 경제통합 초기 증가했던 역내이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NAFTA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세계화시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주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미에서 북미로의 일반적인 이민흐름-노동력의 대량이동-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남미와 북미에 존재하는 빈부의 차 그리고 인구의 불균형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정부의 국제이민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력 감소를 암시하기 때문에, 케셀(Kessel 2000)과 같은 학자는 2000년 캐나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담에서, “NAFTA, EU, MERCOSUR 과 같은 공동시장의 경제가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정보 및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민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며 국제이민에 대한 국가 통제력 감소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²⁴⁾ 그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것은, 세계인구의 2.9%(1억 7천만 명, 2002)가 다른 나라로 이주했으며,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년 100억불에 달하는 마약 및 무기밀수에 종사하기 때문이다(*Estado de São Paulo* 2004).

따라서 국제 노동인구의 대량이동이 가져오는 장기적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합법적 이민 채널 구축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

24) www.eclac.cl/celade/proyectos/migracion/vankessel.doc

나 현재로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민과 관계된 국가의 기능 및 다국적 조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민 수용국의 경우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인구조절, 이민자들의 밀수 및 밀매 근절을 통해 불법이민의 문제와 송금문제 그리고 임시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i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southern region of Latin America was influenced by the formation of Southern Common Market(MERCOSUR).

As the same reason for the NAFTA's case, MERCOSUR also showed that it may not be directly to blame not only for the increased internal migration, but also for the increased external migration, specially to the United States.

The characteristic of this region's intra-migration had and has been "frontier migration". Even though it is a good example under the neo-liberal economic politics, it is more to do with the region's historical background,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Itaipu Hydro-electric Power Plant and the failure of the Brazilian Agrarian Reforms to correct the social inequality.

However, after the formation of MERCOSUR, the Asian financial crisis, Brazil's currency devaluation and later, economic uncertainty in Argentina took the role of "push factor" for the emigration from the region to the more advanced countries of the NAFTA.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principal migration stream from South to North in the America would not change with ease, because of the system change of social structure, derived from the different economic power among the MERCOSUR and the NAFTA. Thus it will be

strongly needed for establishing the legal migration program to fortify the function of the nations which are concerned.

Key Words: Globalization, Latin Americ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MERCOSUR, NAFTA, International Migration / 세계화, 라틴 아메리카, 지역경제통합, 메르코 술, 나프타, 국제이민

논문투고일자: 2005. 01. 14

심사완료일자: 2005. 01. 22

게재확정일자: 2005. 02. 18

참고문헌

- 최금좌(2004), 「세계화시대 자유무역과 이민: NAFTA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1. pp. 161-196.
- Acosta-Belén, Edna(1998), "Extended Borders: Latinos and the Bridging of the Americas", in Jack Hopkins, *Latin America: perspectives on a Region*, 2nd ed., New York/London: Holmes & Meier. pp. 282-303.
- Arguello, Omar(2001), "Migraciones, Pobreza y Sociedad(Otra mirada desde la sociología)", *Revista Estudios Migratorios Latinoamericanos*, Buenos Aires. CEMLA, Año 17, No. 50. pp. 487-513.
- Audley, John & al 3, *NAFTA's Promise and Real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Benencia, Roberto and Alejandro Gazzotti(1995), "Migración limítrofe y empleo: precisiones e interrogantes", *Revista Estudios Migratorios Latinoamericanos*, Buenos Aires. CEMLA, Año 9, No. 27. pp. 261-299.
- Calado, Aurillo Sérgio Costa(1996), "A inserção do Brasil no novo ciclo International de Migrações", *Revista Brasileira de Estudos de População*, Vol. 13. No.1. pp. 101-106.
- Cepal(2002), *Globalización y Desarrollo*, Vigésimonoveno Período de Sesiones, Brasília, Brasil.
- Chakiel, Juan et Miguel Villa(1992), *Carrera*, Barcelona: Icaria(Editorial Maczak, A. and WN Parker).
- CIA(2004), *World Fact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 Cohen, R.(1995), *Cambridge Survey of World Mig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Conway, Dennis(199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fugee in Latin America", in Jack Hopkins, *Latin America: perspectives on a*

- Region*, 2nd ed., New York/London: Holmes & Meier, pp. 264-281.
- Estado de São Paulo*(2004), São Paulo, 26/01.
- Fogel, Ramón(1990), “Los campesinos en tierra en la frontera”, Serie Tierra, CIPAE, No. 2.
- Germani, Guiomar Inez(1982), “O Conflito: Itaipu x Colonos”, *Cadernos de Propur*, No. 3, Porto Alegre.
- Ghatak, Subrata, Paul Levine and Stephen Price(1996), “Migration Theories and Evidence: An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10, No.2, pp.159-198.
- Hollifield, Cornelius Martin(1995),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nnuzzi, Paulo de Martino(2000), *Migração e Mobilidade Social: Migrantes no Mercado de Trabalho Paulista*(org.) FAPESP, IFCH-UNICAMP, Campinas. SP, Editora Autores Associados.
- James, Harold(2001), *The end of globalization: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Cambridge, Massachussets: Harvad University Press.
- Kessel G.C.J. Van(2000),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Summit of the Americas”, www.eclac.cl/celade/proyectos/migracion/vankessel.doc.
- Kunzier, Jacob Paulo(2002), *MERCOSUL e o Comércio Exterior*, 2nd ed., São Paulo: Edit. Aduaneiras..
- Mármora, Lelio(2003), “Políticas Migratorias Consensuadas en America Latina”, *Revista Estudios Migratorios Latinoamericanos*, Buenos Aires. CEMLA, Año 17, No. 50. pp. 111-142.
- Martin, Philip(1997), “Economic Integration and Migration: The Case of Nafta”, in IUSSP Committee on South-North Migration and Instituto Universitario Ortega y Gasset,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t Century's End: Trends and Issues*, Barcelona, May 7-10.
- _____ (2000),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in labour mar-

- kets of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Symposium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mericas, Costa Rica, September 4-6.
- Masi, Fernando(1990), *Paraguay en el proceso de integracion del Cono Sur*. Trabajo presentado no Foro Internacional sobre Integración Latinoamericana, Santiago de Chile, *Discusión y Análisis*. IDIAL, Assunção, No. 6.
- Massey, Douglas S.(1990), “Social Structure, Household Strategies and the Cumulative Causation of Migration”, *Population Index*, Vol. 56, No. 1, pp. 3-26.
- _____ et al.(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19, No. 3, pp. 431-466.
- _____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0, No. 4, pp. 699-751.
- Monto, Alexander(1994), *The Roots of Mexican Labor Migration*, Praeger Publishers.
- Palau, Tomás(1997), *Periódicos ABC y Ultima Hora*, Asunción, del 05/05 a 13/09.
- _____ (1994) “Migração Transfronteiriça entre Brasil e Paraguai: o caso dos brasilguaaios”, *Emigração e Imigração Internacionais no Brasil Contemporâneo*, Vol. 1, Campinas, FNUAP/Neide Patarra(org). pp. 200-207.
- _____ and Victoria M. Heikel(1987), *Los Campesinos, el Estado y las Empresas en la frontera agrícola*. BASE/PISPAL, Asunción, BASE-Investigaciones Sociales. pp. 262-263, 274-275.
- Papademetriou, Demetrios. G.(2003), “The Shifting Expectations of Free Trade and Migration”, in John Audley et al., *NAFTA's Promise and Real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p. 39-59.

- Patarra, Neide Lopes(coord.)(1995), *Emigração e Imigração Internacionais no Brasil Contemporâneo*, Vol. 1. Campinas, FNUAP.
- _____ (1996), *Migrações Internacionais : Herança XX Agenda XXI*, Vol. 2, Campinas, FNUAP.
- _____ (2004), “Economic Integration, Labour Marke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Mercosur Case”, i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New Millennium: Global Movement and Settlement*, Ahgate Pub Co, June.
- Pellegrino, Adela(1995),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América Latina”, *Revista Notas de Población*, Instituc. Universidad de la República Fac. Derecho Ciencias Sociales Montevideo, Uruguay. Vol. 8, No. 2 Jul. pp. 177-210.
- _____ (2000),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2, pp. 395-408.
- _____ (2003),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Tendencias y Perfiles de los Migrantes”, CEPAL, *Población y Desarrollo*, Vol. 35. pp. 113-209.
- Polany, Karl(1980), *A grande transformação - as origens da nossa época*, Rio de Janeiro: Campus.
- Portes, Alejandro(1999) “Conclusion: Towards a New Model: the Origins and Effects of Transnational Activ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 4, pp. 463-477. www.ceu.hu/soc_ant/transnational.htm.
- _____ (2001), “Debates y Significación del Trasnacionalismo de los Inmigrantes”, *Revista Estudios Migratorios Latinoamericanos*, Buenos Aires. CEMLA, Año 16, No. 49. pp. 469-485.
- Reydon, Bastiaan P. and Ludwig A. Plata(1995) “Migrações do Brasil e os mercados de terras agrícolas no Cone Sul”, in Patarra, Neide Lopes(org.), *Imigração e Emigração Internacionais no Brasil*

- Contemporâneo*, São Paulo: FNUAP. pp.160-171.
- Reyes, Marcelo Javier de los(2003) “La aplicación de las políticas neoliberales en la Argentina a partir de los años setenta”, in *Documentos de Trabajo*, Buenos Aires. CEID – Centr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para el Desarrollo, No. 17.
- Russell Sharon Stanton(1995),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World Bank”, HCO(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Operations Policy) in *Working Papers*, HROWP 54,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and Michael S. Teitelbaum(199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160; Washington DC: World Bank.
- Sales, Teresa(1996), “Migrações de fronteira entre o Brasil e os países do Mercosul”, *Revista Brasileira de Estudos de População*, Vol. 13, No. 1, pp. 87-98.
- Salim, Celso Amorim(1995), “A questão dos brasileiros e o Mercosul”, in Neide Lopes Patarra(org), *Imigração e Emigração Internacionais no Brasil Contemporâneo*, São Paulo: FNUAP.
- Santillo, Mario(1998), “O Impacto das Migrações Limitrofes no Mercado de Trabalho da Argentina e Suas Consequências no Mercosul”, in *O Fenômeno Migratório no Limiar do Terceiro Milênio : Desafios Pastorais*(org. SPM, CEM, CNBB, USP, CSEM), Petropolis: Editora Vozes, pp. 191-199.
- Segal, Aaron(1994), *An Atlas of International Migration*, 2nd ed., London: Hans Zell Publishers.
- Simmons, Alan B.(1996), *International Migration, Refugee Flows and Human Rights in North America: The Impact of Free Trade and Restructuring*, Staten Island,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Smith, Thomas(2004), “How Well Does Economic Theory Explain

- International Migration?”, *Conference on Immigration*, <http://www.kimep.k2?SSE/popdev-k/Topics/Conferences/Migration/Smith4a-deh.html>.
- Stalker, Peter(1994), *The Work of Strangers: A Survey of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Sprandel, Márcia Anita(1992), *Brasilguaianos: conflito e identidade em fronteiras internacionais*, Dissertação de mestrado, Programa de Pós-Graduação em Antropologia Social do Museu Nacional de UFRJ.
- Tapinos, Georges Photios(2000), “Globalisation,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UNESCO, pp. 297-306.
- Taylor, J. Edward et al.(1996), “International Mi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Population Index*, Vol. 62, No. 2, pp. 181-212.
- _____ (1999), “Agricultural Price Policy, Employment, and Migration in a Diversified Rural Economy : a Village-Town CGE Analysis from Mexico”,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81, No. 3, pp. 653-662.
- _____ (2003), “Transiton Policy and the structure of the agriculture of Mexico”, <http://www.farmfoundation.org/naamic/cancun/taylor.pdf>
- Texido, Ezequiel et al.(2003), “Migraciones laborales en Sudamérica, : el Mercosur ampliado”, *Estudios sobre Migraciones Internacionales*, No. 63, pp. 189-197.
- Schuck, Peter H.(1998), *Citizens, Strangers and In-Betweens: Essays on Immigration and Citizenship*, Boulder, Colorado: Westview.
- Seminário Internacional Migrações Internacionais - Contribuições para Políticas do Brasil(2000).
- UN(2002),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N.Y.
- UNCTAD(2000), *World Investment Report*, N.Y./Geneva.
- Villa, Miguel(1996), “Una nota acerca del Proyecto de Investigación

sobre Migración Internacional en Latinoamérica”, in N. Patarra (comp.), *Migrações Internacionais : Herança XX Agenda XXI*, Vol. 2, Campinas, FNUAP, pp. 107-124.

Villa, Miguel and Martiez J. Pizarro(2001), “Tendencias y patrones de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Notas de Poblacion*, Vol. 28, No. 73, ECLAC/CELADE, Santiago, Chile.

ZOLBERG, Aristide R.(2000), “The Politics of Immigration Policy: an Externalist Perspective. Immigration Research for a New Century”, in Ruben G. Rumbaut Nancy Foner and Steven J. Gold(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New York: Rusell Sage Foundation.